

견제와 도전의 시대, 개방과 혁신이 생존 전략

문민정부 이후, '글로벌화'라는 낯선 개념이 소개된 지 10년이 지났다. 최종 상품이 수출입되는 '국제화'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는 세계 경제를 얼마나 변화시켰고, 한국 기업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과 견제가 확대되어 개방과 혁신이 절실한 시대로 재편되었다. 최근 UN이 발표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04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간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과 거에는 몇몇 다국적 기업들만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각 지역 시장들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무역 협약이 진행되면서 전세계 시장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전면에 내세웠었다. 1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얼마나 세계화가 진행되었으며, 또 그런 세계화는 우리나라와 기업의 위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보자.

세계화 과정에 나타난 경영의 뉴트렌드

1.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화 UN산하 국제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세계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당시, 전세계적으로 2090억달러에 머물렀던 FDI 유입 규모가 2003년에는 5600억달러로 증가했고, 누적 FDI 유입 규모도 8조2450억달러로 세계 GDP의 22.9% 수준에 도달했다.

또, 6만여 다국적 기업들의 총생산량이 세계 GDP의 10%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이들이 수출하는 물량은 전세계 수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계 100대 기업 해외 자회사가 생산하는 금액이 전체 해외 자회사 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형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개도국에 대한 FDI 확대 IT 경기 불황으로 촉발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2000년대 들어 FDI의 절대금액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FDI는 2003년 1720억달러로 2002년 대비 9%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부문만 살펴보면, 전체 FDI 중 766억달러가 개도국으로 투자되어 2001~2002년 선진국으로 투자된 900억달러의 85%에 육박하였다. 물가수준을 고려한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FDI 흡입도는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개도국 중 중국은 FDI 자금의 중간 기착지인 록셈부르크를 제외하면 2003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FDI를 받은 국가가 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세계 경제 성장 엔진이 옮겨오면서 부존자원에서 상보적 관계가 존재하고 우위 확보가 용이한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3. 외국 자본 이용한 민영화 축소 남미의 경우 1999년 1000억달러가 넘는 FDI 투자 규모가 2003년에는 500억달러까지 떨어졌다. 가장 큰 원인은 민영화 수단으로 이용하던 외국 자본의 유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민영화 규모는 2000년 500억달러에서 2003년 200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같은 기간 개도국에서 민영화를 위한 외자 유치는 330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1/1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 자본을 활용한 민영화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그 원인이 있다.

4. M&A보다 직접투자 선호 2003년 총 FDI 건수는 9300건인데 비해 M&A를 통한 현지 진출은 4500건에 불과했다. 또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직접 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순이었고, M&A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화적 통합과 관계가 깊다. 투자 주체인 서구 기업은 문화적·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경우 M&A를, 문화적 차이가 큰 개도국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투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2000년대 이후 성행하던 국경을 넘는 M&A가 기대했던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M&A에 의한 FDI의 절대 건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 서비스업의 FDI 확대 상대적으로 세계화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서비스업에서도 FDI가 크게 확대되었다. 전통적으로 FDI에 적극적이던

업종은 은행과 무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전기 발전 서비스, 수도, 이동통신 서비스 및 기업의 공통 서비스 센터(Shared Service Center)와 같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핵심 고객과 함께 동반 진출하던 소극적 세계화에서 고객을 확대하거나 기업 활동 중 공통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T 시스템을 활용한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글로벌경영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FDI 유입액은 1992년부터 평균 12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늘어나 1999년 94억달러에 달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던 2002년에는 29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3년 세계 경기의 회복과 함께 다시 37억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FDI가 우리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이 앞으로 FDI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있어서도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GDP 성장률, 수출 비중, IT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감안한 UNCTAD가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FDI 유치 가능성은 18위 수준이다. 이는 1998년 21위에 비하면 향상된 것이지만, 아시아 권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아랍 에미리트 다음이다.

해외로 투자한 FDI 유출누적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로 낮은 수준이다. 세계 평균이 23%, 일본이 7.8%, 중소·벤처기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대만이 22.8%인 것을 감안할 때 훨씬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생산 기지 해외 이전에 따른 생산 자본의 해외 유출 정도나 산업 공동화의 문제가 아직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LCD,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철강, 조선은 어느 한 분야도 세계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사업 운영을 생각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설비와 R&D 투자를 요하고 있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단위의 사업구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기업은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간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많은 성장을 일궈냈고 몇몇 기업들은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글로벌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내주고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철저히 밀려나고 있다. 첨단 분야라고 여겨졌던 휴대폰 분야에서 한때 50%를 넘는 국내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던 모토로라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떨어졌고 오히려 경쟁력을 쌓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서구 선진 기업들의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투자한 외국 기업으로부터 원가 경쟁력에서 강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짐에 따라 견제와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외국 자본을 유입과 우리 기업의 해외에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장의 변화가 괴롭다고 혁신을 미루면 언젠가는 외부 압력에 의한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자료 정리 : LG경제연구소 <글로벌경영의 뉴트렌드>, 김창현>